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 현황

■ 손가녕*

1. 개요

핀란드는 인구가 서울의 절반 수준인 550만 명에 불과해, 내수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100년이 넘는 식민 역사를 딛고 일어 서기 위해 교육열이 높다는 점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노키아 쇼크¹⁾를 겪은 이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중소 기술창업 주도의 경제구조로 탈피해 현재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²⁾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선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한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 사업 및 정책과 벤처캐피탈(VC)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핀란드 창업 생태계의 장점을 정리함으로써 벤치마킹 포인트를 살펴본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연구원, (043)531-4142, sson@kisdi.re.kr

- 1) 핀란드 GDP의 24%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주력인 무선사업부를 Microsoft에 매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를 야기(KOTRA, 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하였다. 실제로 핀란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노키아 쇼크로 2012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16년 1.8%, 2017년 2.6%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2) 2011년 4월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12개월 치 월급인 평균 2만 5천 유로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노키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키아의 우수 인력은 약 1,000여개의 스타트업을 구축했고, 이는 핀란드 스타트업의 시발점으로 평가 받는다(중앙일보, 2018. 06. 17, “핀란드 경제위기 극복 원동력, 스타트업 육성·규제안화”).

2. 주요 내용

(1) 핀란드의 창업지원 기관과 창업지원 사업

핀란드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기관으로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를 꼽을 수 있다. 핀란드는 2018년 1월, TEKES(기술혁신지원)와 Finpro(수출·투자·관광진흥)를 합병해 비즈니스 핀란드를 출범하였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8. 11. 28).³⁾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전반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스타트업과 혁신 역량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성장지원과 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Tempo라는 초기 스타트업 보조금 제도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YIC(Yong Innovative Company) 및 GAP(Global Access Program), Born Global TM을 통해 R&D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네트워크 및 투자를 연계하는 컨퍼런스 형 사업으로 글로벌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자리 잡은 '슬러시(SLUSH)'가 있다. 슬러시는 알토(Alto)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한 행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의 글로벌 행사로까지 발전한 형태로, 현재에도 슬러시 조직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참여지원을 통해 행사가 개최·진행되고 있다.

슬러시는 핀란드의 대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사우나(Starup Sauna)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스타트업 사우나의 데모데이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슬러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어 투자 및 사업 확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

2018년 행사에는 130개국에서 3,100여개 스타트업, 1,800명의 투자자, 2만여 명의 참관객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스타트업 77개사가 참여하였다. 2019년 행사는 11월 27일~28일로 예정되어 있다.

3) 비즈니스 핀란드는 직원 수 600명, 40개 해외사무소, 15개 지방사무소, 예산 6억 유로의 규모로 출범하였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8. 11. 28).

(2) 핀란드의 창업지원 정책 및 제도

핀란드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며, 특히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자금부문에서는 정부와 민간 수출 신용기관이 설립한 특수금융 공적자금 기관인 핀베라(FINNVERA)가 스타트업 인수,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을 제공한다(KOTRA, 2018). 핀베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핀베라 소액 대출 프로그램’(FINNVERA Small loan programme)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5인 이하 소기업의 창업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고, 신생 스타트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부문에서는 창업 붐 조성을 위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디지털 라이트하우스(Digital Lighthous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라이트하우스 전략은 단기(Short-term), 중기(Mid-term), 장기(Long-term)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표 1〉 디지털 라이트하우스 전략의 단계별 개요

구분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관
단기(Short-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특정 회사가 자사 연구를 사업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기업의 사업 자체를 돕는 전략 • (지원 기관) 핀란드 정부 산하 Business Finland
중기(Mid-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전략 • (지원 기관) 핀란드 정부 산하 Business Finland
장기(Long-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5G,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 (지원 기관) 핀란드 테크니컬 리서치 센터(VTT)

자료: KOTRA(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재구성

우선, 단기 지원은 특정 회사가 자사의 연구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즉, 기업의 사업 자체를 돕는 전략이다. 단기 지원은 핀란드 정부 산하의 ‘비즈니스 핀란드(전 Finpro)’에서 주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기 지원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쉽게 말해, 스타트업 육성 전

략이다. 중기 지원 역시 핀란드 정부 산하의 ‘비즈니스 핀란드(전 TEKES)’가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장기 지원은 5G,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기업들이 국책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장기 지원은 ‘핀란드 테크니컬 리서치 센터(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에서 주도한다(IT 동아, 2017. 10. 13).

핀란드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허가(Finnish Startup Permit)’ 제도와 ‘창업자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다. 우선, 핀란드의 스타트업 허가 제도는 2018년 개정된 Aliens Act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며, 외국인 창업가가 비즈니스 핀란드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이민국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통해 바로 거주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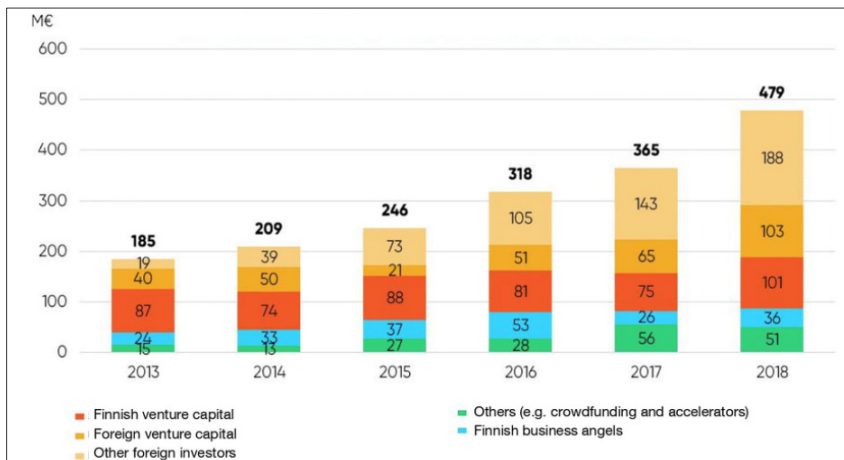
최소 2인 이상의 창업자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무한책임회사(1인 기업) 또는 유한 책임회사의 대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신청을 받고,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인 창업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6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 운영에 대한 충분한 자금 및 재원 조달 능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비자의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심사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스타트업 허가제도를 통해 핀란드에 창업한 글로벌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핀란드와 핀란드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

‘창업자 보조금 지원’ 제도는 핀란드 내국인 중 구직자나 보조금을 활용한 직업훈련 등을 마친 후 풀타임 창업자가 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일에 32.4 유로의 보조금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KOTRA, 2018). 예비 창업자의 생존에 보조금이 필수적인 상태이어야 하며, 창업이 보조금 지원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

(3) 핀란드의 벤처캐피탈 현황⁴⁾

핀란드 창업 환경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의 활성화에 있다. 지난 몇 년간 엔젤 및 벤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18년에는 핀란드의 벤처 및 스타트업에 총 4억 7,900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져 종전의 최고치를 갱신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 중 해외 투자는 2억 9,100만 유로로 총 투자 규모의 60.8%에 달하며, 이는 2013년 9,500백만 유로에서 5년간 연평균 37.6% 증가한 규모이다. 해외 투자 중 해외 VC 투자는 2018년 기준 1억 3백만 유로로 5년간 연평균 20.8%로 증가하였다.

[그림 1] 핀란드 VC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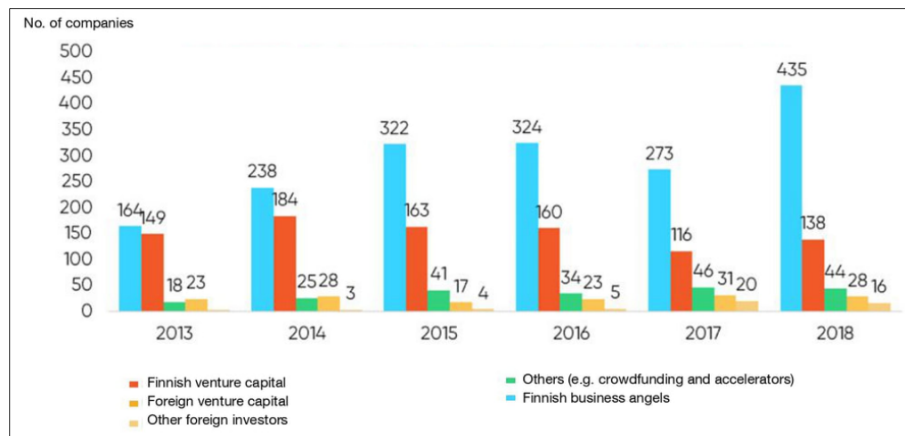
자료: FiBAN(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핀란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민간 투자자 조직은 ‘핀란드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FiBAN)와 ‘핀란드 벤처투자협회’(Finn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FVCA)로 투자 활동과 더불어 각종 스타트업의 지원 사업을 진행

4) FiBAN(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https://www.fiban.org/news/a-record-breaking-number-of-investments-479meur-into-finnish-startups>를 참고하여 작성.

하면서 핀란드 창업 생태계의 민간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8. 01. 11). 2018년 핀란드 벤처캐피탈(Finnish Venture Capital)은 1억 1,00만 유로를 154개사에 투자하였으며, FiBAN은 3천 6백만 유로를 453개사에 투자하였다. 특히 FiBAN은 핀란드 창업 생태계에서 초기 단계 자금 조달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엔젤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이 높은 단계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만을 평가하여 개인 자산을 투자한다.

[그림 2] 핀란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



자료: FiBAN(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엔젤투자자 당 평균 투자금액은 42,000유로였으며, 중앙값은 18,000유로였다. 평균적으로 엔젤투자자는 1.8개사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 가치의 중앙값은 약 90만 유로로 평가되었으며, 엔젤투자자가 받은 지분의 중앙값은 2%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엔젤투자자 중 70%가 2018년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였고, 응답자의 88%는 2019년에도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핀란드의 엔젤투자 규모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어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는 노키아 쇼크 이후 형성된 창업 장려 문화를 바탕으로 민간과 산학관이 협력하여 지금의 스타트업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창업기관 및 사업,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핀란드는 2018년 기술혁신을 지원하던 TEKES와 수출·투자·관광진흥을 담당하던 Finpro를 합병하여 ‘비즈니스 핀란드’를 신설함으로써 창업과 관련된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 사업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전반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초기 스타트업과 혁신 역량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성장지원과 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며,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특히, 자금 부문에 있어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의 활성화는 핀란드 창업 환경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핀란드 정부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허가’ 제도와 ‘창업자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다.

핀란드를 넘어 글로벌 행사가 된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슬러시’는 핀란드 창업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써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며, 핀란드의 대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사우나’와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 《중앙일보》(2018. 06. 17), “핀란드 경제위기 극복 원동력, 스타트업 육성·규제안화”
FiBAN(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홈페이지, <https://www.fiban.org/news/a-record-breaking-number-of-investments-479meur-into-finnish-startups/>.
- 《IT 동아》(2017. 10. 13), “르포: 노키아 쇼크 극복한 핀란드를 배우다”.
- KOTRA(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 Kotra 해외시장뉴스(2018. 01. 11), “핀란드 미래산업 동향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 Kotra 해외시장뉴스(2018. 11. 28), “핀란드 Start-up 지원기관 Business Finland의 지원 정책”.